





# 높은 실력으로 자기 단위의 오늘과 래일을 책임지자

## 무산광산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 차중범 동무의 사업을 놓고

철산봉!  
저 멀리 백두산이 지켜보는 이 봉우리에서 우리는 단숨에 정신으로 비약하는 조국의 속도를 보고있다.

북방의 한끝에서 소문없이 많은 일을 해제끼며 수평의 유희관찰전, 당정책옹위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무산광산련합기업소, 총공-지침을 혼드는 발파소리에서 전진적의 벅찬 승격을 호응하며 우리는 오늘의 시대의 요구에 대답을 주는 귀중한 경험에 대하여 말하게 된다.

그 주인공이 바로 기업소당위원회 책임비서 차중범 동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이 앞되는 단위를 보면 어느 단위가 할것없이 일인들의 책임이

높고 실력이 있는 단위입니다.》

단위의 발전에서 책임일꾼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시되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일인들이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질것을 요구 하고있다.

당정책에 대한 민감성과 완강한 실천력,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실력자형의 당책임일꾼만이 자기 단위를 강성국가건설의 전선에 멋있게 세울 수 있다.

일꾼의 실력은 곧 단위의 운명문제!

최근년간 비약의 지름길을 질풍같이 달려온 무산광산련합기업소의 발전행로에 소려없이 찍혀진 당책임일꾼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며 우리는 이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며.

그의 독특한 모습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대중의 정신풀을 발휘하는 데서 차중범 동무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은 이신작적과 믿음과 정에 의한 사람들의 사업이다.

3호대형원추형과쇄장건설이 한창이던 지난 1월 어느날이었다.

공사장으로 향한 길에 온몸 열을강판이여서 물동을 실은 자동차들이 섣달 떠날날을 못하고있었다. 이때 자동차행렬의 맨앞으로 나가는 승용차가 있었다. 책임비서의 차였다. 경사급한 눈길을 한치한치 뚫아 오르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 자동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실천으로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친성이었다.

차중범 동무는 현장에서 도차한 즉시 화산석정지사업으로 공사장을 들렀다놓고 하였다. 그리고는 슬며시 돌격대원들의 침실을 찾았다.

침실의 싸늘한 공기는 때문에 그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였다. 평소 30℃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속에서 전투를 벌이는 돌격대원들에게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주지 못한 자책감으로 가슴이 비어졌다. 그는 곧 발걸음 보강대책을 세웠다. 그리고 돌격대원들에게 솜옷과 솜신, 모포를 시급히 보강해주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였다.

평명 얼어붙은 대지에에서 결사전을 벌이는 돌격대원들의 가슴가슴을 후덥게 달구어준 당책임일꾼의 맑은 정치사업은 한달도 예견했던 기조공사를 보름만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게 하였다.

발걸음 볼 때까지 내미는 완강한 기질은 실천가형의 일꾼의 중요한 징표이다.

차중범 동무는 일단 시작한 일을 중도에에서 포기한적이 없다. 그의 실천과정에 불사공전 없던 없으며 오직 무조건이라는 개념만이 있을뿐이다.

수십년세월 수일에 의존해오던 1지하과쇄기의 왕복식공압기유압프를 기업소 자체의 힘으로 생산하던 사실을 놓고보자, 왕복식공압기유압프의 생산량의 2배

에 리용되는것으로서 생산전반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속품이다. 그것을 위해 비행기를 띄우지 않으면 안되던 사실은 이 부속품의 국산화를 실현하는것이 기업소의 운명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라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차중범 동무는 기업소자체의 힘으로 유압프를 만들것을 발기하였다.

기술일꾼들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전문공장도 아닌 기업소에서 유압프를 자체로 만든다는것은 불가능하다는것이였다.

그러나 기업소가 언제까지나 남에게 명줄을 걸고 살수는 없었다. 국산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정책을 외면하고 한술이나 싣다면 기업소의 전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차중범 동무로 하여금 용단을 내리게 하였다.

그 실현과정은 간단치 않았다. 유압프의 구조가 복잡해다가 제질과 가공정밀도를 보장하는것이 당시 기업소의 조건으로 볼 때 하늘의 별을 따는 격이라곤 할수 있었다.

그러나 차중범 동무는 물러설수 없었다. 당책임일꾼인 자기가 주축하면 기업소는 영원히 자립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에 그는 결사적 정신으로 완강하게 내밀었다. 하여 끝끝내 성공의 열매를 얻어냈다.

이런 완강한 실천력으로 차중범 동무는 위대한 수평님들의 유훈을 하나하나 관철해나갔다.

1호대형원추형과쇄장 2호대형원추형과쇄장건설, 2선광장 5개 계통 기술개발과 한계 계통 증설, 1지하과쇄기 수직공압기설치, 장거리터번트르베아 《나》선공사, 조광차기형 3호대형원추형과쇄장건설, 5, 000m에서광사공사...

국작대건설과 맞먹는 방대한 공사들을 단 몇달사이 에해결함으로써 수평의 유희관찰전, 당정책옹위전의 앞장에서 멋있게 서게 된 무산광산련합기업소의 현실은 당책임일꾼의 당정책에 대한 민감성과 완강한 실천력이 단위의 비약발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연세 어떤 질문이 날아들지 몰라 가슴을 조이곤 한다.》는 기술일꾼들의 고백에는 오늘의 시대 당일꾼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있다.

많은 단위들에서 당일꾼들이 주요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 나가 기술자, 노동자들과 함께 지세우고 후방사업도 하면서 고매해주시지만 응당한 결실도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당일꾼들이 과학기술을 모르면 결된 고리가 무엇이고 어디에 힘을 집중해야 하는가를 알수 없으며 그러한 정치사업, 조직사업은 과녁을 명중시킬수 없는 것이다.

대중은 힘을 내라고 호소하는 당일꾼보다 도면을 놓고 함께 방도를 모색하는 당일꾼을 더 존경하며 기술자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는 그의 모습에서 새로운 자각과 분발심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열매마디의 딸로써도 대신할수 없는 가장 훌륭한 정치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런 현실의 요구를 심장깊이 새긴 차중범 동무에게 과학기술분야에 남김지울라 고배를 든듯한 틀어쥔것이다.

이것만큼 지도의 실패를 눈앞에 두고 대중을 발동시킬수 있다.

차중범 동무가 과학기술보급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꾸리도록 한 사실을 놓고보자, 차중범 동무는 과학기술보급을 단위의 비약발전과 전망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는 보루로 꾸릴것을 발기하고 여기에 많은 힘을 넣었다. 과학기술보급을 기업소 기술인구수와 한전도를 꾸리도록 하여 기술자들이 임의의 시각에 과학기술자료를 열람하면서 연구사업을 진행할수 있게 하고 보급기, 교육기, 교류기 등 다기능화된 과학기술거점으로 전환시켰다.

차중범 동무는 모든 사업을 포괄하고 지도함에 있어서 방향을 그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세부적인 방도에 이르기까지 가르쳐주곤 한다. 기업소의 사업계획과 운영방식은 물론 생산공정에 이르기까지 원리적으로 따져보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실리가 있게 과학적으로 짜고들고있다.

5, 000m에서광사공사때는 콘베이어 대형감속기를 설치하려 한다는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대동 콘베이어운영에 필요한 감속기의 능력을 특수 타산해본 그는 큰 대형감속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원리적으로, 수자적으로 론증하였다.

기술자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사실 그들이 대형감속기를 설치하려 한것은 기성설계의 요구를 그대로 따랐기였다. 물론 그보다 작은 감속기라도 콘베이어 운영에 지장이 없으리라는것을 모르는바가 아니었다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여부를 조선했던것이다. 그러나 현장과악이 깊고 기술문제들에 해박한 책임비서 앞에서 그런 불필요한 여부가 통렬히 만무하였다.

하여 우리대고 대형감속기를 수입하려던 계획은 취소되었고 기업소에 의한 감속기 콘베이어에 설치하여 정상운영을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의 약동하는 승격을 이 단위는 오늘도 그러하지만 래일은 더욱 흥할것이라는 확신이다.

그 당보가 무엇인가, 바로 인체의 대부분이 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 기업소의 가장 큰 힘이고 자랑이며 이런 거대한 잠재력을 키운것이야말로 당책임일꾼의 실험의 실험, 성과중의 성과라고 할수 있다.

차중범 동무는 땅속의 땅속을 캐내듯이 기업소의 곳곳에 보석과 같이 묻혀있던 인재들을 하나하나 찾아냈다.

인재를 보는 눈은 실력이다.

차중범 동무는 동력부에서는 누구, 자동화부에서는 누구, 후방부에서는 누구고 단숨에 내리쬐는 지도도 기업소의 인재들을 손꼽듯 장악하고있다.

그들을 기업소의 오늘만이 아니라 래일도 때때고나갈 기동장으로 키우기 위해 많은 품을 들이고있는 그의 진취적이고 광망적인 일분세는 기업소의 운명을 책임진다것이 어떤것인가를 두고 깊이 생각해 한다.

차중범 동무는 자체의 기술력장을 튼튼히 꾸리는것을 기업소의 전당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보고 여기에 큰 힘을 넣었다.

1호대형원추형과쇄장 2선광장의 컴퓨터화를 실현할 때였다.

차중범 동무는 이 기술집단의 기업소의 기술력향상을 위한 불초로 삼았다. 얼마 후 그 불씨는 각 부분의 유능한 기술자들을 망라한 정보기술도입실이라는 불길로 타올라 2호대형원추형과쇄장 조광차기형 3호대형원추형과쇄기의 컴퓨터화 등을 차례의 힘으로 실현하게 되었다.

차중범 동무는 새 도서의 첫 두자일뿐 아니라 보급자이기도 하다. 새로 나온 도서를 먼저 읽어보고 이 책은 공업기술연구소의 누구에게 주고 이 책은 설계연구소의 누구에게 주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과업을 주문 한다.

동력과 지평장에게는 이런 추억이 있다. 인제인가 그는 책임비서가 보내준 새 기술도서를 받게 되었다. 그로부터 며칠후 책임비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 책에서 어떤 내용이 주목되는가를 묻는 책임비서는 대개 어느 부분을 다시 구체적으로 보라고 일깨워주는것이였다.

그 책 지평장이 받은 장치가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 전문가인 차중범 동무가 세어있는 스승을 보았던기이다.

이렇게 차중범 동무는 자신이 직접 스승이 되어 대중에게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들을것을 이끌어내며 그들을 실험의 강자로 키워나갔다.

인재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동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차중범 동무가 놓치지 않은것은 평가사업이다.

차중범 동무는 공로있는 기술자, 기능공들에 대한 정치적평가를 잘해주는것과 함께 해마다 열리는 과학기술성과진시회에서 순위권에 든 대상들에 대한 물질적평가들뿐 아니라 그 조직하는데 대한 물질적평가 받은 만큼을 돌려주었다. 또한 기술자들에게서 살려놓은 우선순위로 배정해주고 그들의 건강을 위한 여러가지 우대조치들을 취해준듯 함으로 누구나 높은 의욕과 자발심만 한 배짱을 가지고 실력적인 한복판에 뛰어들도록 하였다.

혼자서는 통마를 힘껏 몰아갈수 없다. 고배를 들이던 당책임일꾼을 따라 모든 종업원들이 하나의 호흡으로 박자를 가할 때 통마가 비약의 나래를 펼친다고 한다. 만리마가 되어 내달을수 있다는것을 무산의 현실은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당시 말그대로 한 단위에 대한 비대한 책임감을 안고 기업소의 발전의 길에 지혜와 열정을 안고리 버추는 실력자형의 당일꾼의 고지와 헌신의 자욱자욱을 더듬어보며 우리는 생각한다.

과학기술분야를 타고 힘차게 전진해온 나날에 많은 종업원들이 발명증서와 창의 고안증서를 받았지만 차중범 동무에게는 그 어떤 학위나 증서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대중의 가슴속에 찰뎠 스승으로, 모든 부문에 정통한 박사로서 소중히 새겨져있다.

그렇다. 기업소가 이룩한 모든 성과들, 그것이 바로 당일꾼의 진정한 자각증이 아니겠는가.

일꾼들은 높은 실력으로 자기 단위의 오늘과 래일을 책임지자!  
이것이 온 나라에 울려가는 철산봉의 메아리, 시대의 메아리이다.

본사기자 김영철  
본사기자 김순영

### 발은 자기 땅에, 마음은 당중앙위원회 뜨락에

당정책에 대한 민감성과 대중을 조직 동원하여 끝장을 보는 완강한 실천력은 차중범 동무의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차중범 동무가 무산광산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임명된것은 지금으로부터 6년전이었다.

그때 차중범 동무는 철산봉이 통제로 내려앉은 첫 중앙감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단위의 전진 발걸음에 격동적인 현실과 너무도 먼거리에 있었던것이다. 더구나 심각한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업소를 떠나가신 때로부터 여러해가 흘렀으나 현지교시집행에서 성과가 거의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것이였다.

차중범 동무는 그 원인을 객관적조건이나 실무적인 문제에서 찾지 않았다. 물론 어려운 조건에서 국가대선건설과 맞먹는 방대한 과업들을 수행한다는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우에 놓이는 근본원인이 있었다. 수평의 사상과 뜻을 근본의 드림도 없지 않았다. 수평의 결사의 결사의 각오와 의지가 부족했었다. 언제나 철산봉을 당중앙위원회 뜨락과 하나의 혈맥으로 잇고 싶을 순간들을 명도자와 뜻도 술겉도 발걸음도 함께 하는 기풍이 세워질수 없었던 것이다.

수평의 발걸음에 따라서 컸는 단위, 수평의 사상과 의도를 관철하지 못하는 당일꾼은 존재가치가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차중범 동무는 곧 좋은 큰 작전을 펼쳤다.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실을 비롯한 사상교양기점들과 10여개의 명도업적 단위들을 개건하며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방대한 공사들을 동시에 펼쳐보이고 난관을 파고히 해치며 방대한 1호대형원추형과쇄장건설과 2선광장 5개 계통기술개발 및 한계 계통증설 공사를 불과 한달사이 에 끝냈으며 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 커다란 만수를 드려왔다.

이렇게 혁명적수평관으로 일관된 첫걸음을 내짚은 차중범 동무는 당시의 한자욱한 자욱이 그대로 철산봉을 수평적사용위, 결사관철의 성세로 치솟게 하는 고귀한 성업을 이 되도록 하기 위해 애썼었다.

현지시 당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당사업의 활력을 어디에 집중하며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였는가를 두고 그는 늘 사색하곤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애유원, 육아원을 현지지도하시던 곧 콤팩트, 유치원들대 나가보고 원수님께서 어느 단위의 연혁 기록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 미흡한 기업소의 연혁소개에 달려나가 지출한 점이 없는가를 직접 확인해보며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합숙에 대한 현지지도사색에 접하던 그 즉시 만사를 놓고서 도사숙부터 찾았다. 이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을 자욱자욱 따르며 일감을 찾는것은 그의 공고화된 사업방식이다.

여기에 차중범 동무의 당정책에 대한

민감성을 보여주는 사실이 있다. 국가계획 40.1 정보, 기업소자체계획 200정보, 수행정형 227정보.

이것은 올해 기업소의 산립부구조전투와 관련한 자료이다.

짧은 기간에 온 나라의 산들을 푸른 숲으로 뒤덮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구상을 받드는 데에서 결코 국가계획을 수행하는것으로 만족할수 없었던 차중범 동무였다. 하여 그는 본래계획의 5배에 달하는 용이 큰 작전안을 세우게 되었고 긴장한 생산전투가 벌어지는 속에서도 대중의 정신풀을 발휘하여 산립부구조전투에서 자랑할만한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였다.

사색도 술겉도 발걸음도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

차중범 동무의 한결을한결음에는 이런 강렬한 지향이 고동치고있다.

차중범 동무는 현장에서 나가면 일꾼들보다 로동자들을 먼저 만나곤 한다. 오랜 기능공들, 제일 어려운 부문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생산에서 결된 고리들을 찾고 생활현도 구제책을 모으고 있다. 그가 이레단위 일꾼들도 미처 모르는 사실들이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알고 대책들을 세울수 있는것은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할 때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당정책실현에 구현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당책임일꾼인 자신이 수평의 의도를 모르면 자기 단위가 수평에게서 멀어지게 된다. 이는 자, 단위의 운명이 자신의 어깨에 놓여있다는 책임감이 차중범 동무로 하여금 모든 수도에수 수천리 떨어진곳에도 마음은 언제나 당중앙위원회 뜨락에 얹고 살도록 하였다.

당일꾼에게 있어서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혁명적전격력은 매우 중요한 실력이라고 할수 있다.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차중범 동무의 완강한 실천력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것은 작전이다.

차중범 동무는 당정책을 접수하면 우선 그 진수를 파악하기 위해 사색하고 연구한다. 그에 기초하여 작전안을 세운다. 그 다음공정은 협의회이다. 그는 이 공정을 매우 중시한다. 대중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이미 세운 작전안을 검토하고 보충완성하며 그것은 즉시 당정책으로 채택되게 된다. 이렇게 즉시 사색과 연구, 체계적적의를 거친 작전안을 열석로 펼쳐내면 열지 못할 대문이 없는것이다.

대중발동에는 기술이 있다.

차중범 동무의 사업과정은 하나하나가 그대로 당정책선전과공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평님들의 교시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사상들을 토 한자 놓이지 않고 그대로 실정에 새기고있는 데에 걸쳐 있어서 당정책해설의 시간과 공간, 격식과 틀이 따로 없다. 회의를 지도할때에도, 현장에 나가 정치사업을 할 때에도, 사람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대화할 때에도 당의 사상과 의도를 알려주는대로 화제가 이어지곤 한다. 그의 발걸음은 그의 공고화된 사업방식이다.

그가 더더나 당정책선전과공으로 되는것이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심장을 움직이는

### 과학기술분야의 컷배는 누가 쥐어야 하는가

차중범 동무의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비상히 높은 과학기술 실력으로 단위를 이끌어나가는것이다.

과학기술의 시대인 오늘 그 어느 당책임일꾼이나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실력력을 벌리라고 호소도 한다.

그러나 대 단위의 성과는 꼭짓기 않다. 무엇보다도 인이다.

그것은 당책임일꾼이 실력적인 1번수의 위치에 서있고 그 그렇지 못한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볼수 있다.

기업소의 곳곳에서 우리는 스스럼없이 울려나오는 책임비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곤 하였다. 그 내용은 서로 달랐지만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중앙에 내리곤 하는 결론은 하나같았다. 우리 책임비서는 만능박사, 음직이는 백파사신이라는것이였다.

그 호칭은 대중이 차중범 동무에게 안겨준 증서없는 학위이다.

그가 오늘과 같이 실력적인 1번수로 대중의 인재를 받게 되기까지에는 참으로 많은 노력이 깃들여있다.

차중범 동무가 기업소에 갓 임명되어왔을 때였다.

생산에서 제기되는 많은 기술적문제들은 기계공학을 전공한 것인데 있어서 너무도 생소하였다. 우선 지질학을 알아야 했고 채굴학도 알아야 했으며 공학, 전기, 자동차, 화학부문 등에 대한 지식도 필요했다.

생산만이 아니었다. 건설부문과 후방부문을 주책세우라고 해도 설계, 시공, 농산, 축산, 수산부문에 박사해야 했다.

기업소의 전반적인 지도를 소우하는 그에게 있어서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구로 나섰다. 모르고서는 한결을도 견진할수 없는 오늘 기업소들 명의 의대로도 이끌어나가지던 첫째도 둘째도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여야 했다.

실력제라는 곧 당일꾼의 존재문제, 기업소의 운명문제라는 의식은 그로 하여금 비상한 각오를 가지게 하였다.

### 차중범 동무의 사업을 놓고

그의 학습을 운명을 판가름하는 전투로 자기자신에게 선포하였다.

새로운 화산일과표가 생겨났다. 밤에 현장을 돌고 사무실에 들어오면 그는 책을 스승으로 하는 학생이 되곤 하였다. 스스로 선정한 교과의 내용은 다양했다.

채굴공학, 자동차공학, 매지기, 버섯재배, 강방이 농사, 논농사...

그는 책방에 돌아오는 새 도서들의 첫 독자였다. 현장이든 사무실이든 어디나 교일로 여겼고 담화나 협의회 등 모든 공간이 배움의 마당이었다. 정동도 승용차안에서도 손에서 책을 놓을줄 없었다. 매일 2시간이상 책을 읽는것을 원칙으로 여기었고 과학기술적문제를 진지하게 파고들다가 답답이 안되는것이 있으면 전문가들을 찾아가 허심하게 배우곤 하였다.

그 과정에 그의 지식의 보물고는 날이 풍부해졌다.

그의 다방면적인 지식을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어느 한 단위의 연혁 소개실을 돌아보신 소식에 접한 차중범 동무는 그걸로 연혁소개실에 나가모였다. 연구실이 없는가를 주시해보면 그의 시선이 조명을 달았다. 조명이 어두워보였던것이다. 그는 동정한 기술일꾼에게 그 방도를 찾아보는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다음날 열린 협의회에서 차중범 동무가 전달에 과업을 주었던 일꾼에게 연혁소개실의 비침도문제를 두고 이야기 할 때였다. 아마 실내는 300kw, 복도는 100kw정도 보장되어야 할것인데 당책임일꾼의 말에 협의회참가자들은 어안이 방망해졌다. 과업을 받았던 기술일꾼에게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평양조명기구공장에 알아본 내용과 신통히도 일치하였던것이다.

전문기술일꾼들도 책임비서앞에서는 진땀을 뺀 경우가 많다. 그럴 때면 그들은 매번 새로운 눈으로 책임비서를 바라보곤 한다. 《우리 책임비서앞에서는 지도도 모르게 학생이 되곤 한다.》, 《회의를 하다가도

### 년 간 계획을 앞 당겨 수행

자서립산사업소의 동동계급이 년간계획을 지표별로 끝내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력과 사업소에서는 년초부 로력과 수단을 산란에 집중하고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통나부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항철작업소에서 남침지 승리의 기발을 휘날렸다. 작업소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통나부생산 년간계획을 기한전에 끝냈다.

베어내기 바쁘게 트랙터를 만가동시켜 베어낸 통나부생산에 로력수 실이냄으로써 1월말에 마감기준을 포함한 년간계획을 완전히 끝내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과를 이룩하였다.

사업소에서는 연이 년간계획을 완수한 작업소들에서 역량과 수단을 성동작업소에 집중하여 설립전을 벌리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산란조건이 불리한 성동작업소도 년간계획완수자대에 오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었다.

지금 사업소에서는 이룩한 성과를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계속 높은 전투를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 아름다운 화원에는 훌륭한 원예사들이 있다

## 보통강구역 화초사업소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지난 5월 제2차 전국청년미공진사업대회에는 보통강구역 화초사업소의 17명 청년들이 참가하였다. 작업원이 수심명백에 안되는 크지 않은 사업소에서 이렇게 많은 청년미공진자들이 배출하게 된것은 이곳 초급당위원회의 사업과 밀접히 관련되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과 당일꾼들은 청년교양에 항상 머리를 쓰고 품을 들이며 청년동맹조직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이는 데 주목을 돌리고 청년들이 활개치며 위훈을 세울수 있도록 각방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 보통강구역 화초사업소에는 구역안의 중화교출업생들이 수심명백이 나 관련하여왔다.

당시 그들의 가슴마디에는 평양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꾸리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한 구상을 힘차게 꽃피우려는 열망과 리상이 간직되어있었다.

그러나 꿈과 리상이 아름답다고 하여 그것이 곧 실현으로 이어지는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모르는것이 많았고 단련도 부족하였다.

삼십도 제대로 할줄 모르는

청년동맹원들이 태반이었다. 사업소주머니를 할 때에는 지쳐 쓰러지는 청년동맹원들도 나타났다. 작업열의는 점점 식어갔고 공사속도도 그만큼 떨어졌다.

초급당일꾼의 마음은 무거웠다. 탄원자들과도 하여 마음을 놓고 관심을 적게 돌리던 그들을 우리 당의 믿음직한 선군전선전투로 키울수 없고 또 그들의 아름다운 꿈도 리상도 꽃피워줄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이 기회에 사업소안의 청년동맹원들을 사상의 강자로 언에게 키우기로 결심하였다.

희의를 비롯한 여러 계기때마다 초급당일꾼은 동무들을 만난채로 연애와 공지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총정의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고 절절하게 이야기하면서 정치사업을 그들의 준비비도와 특성에 맞게 실속 있게 해나갔다. 그리고 청년동맹 초급일꾼들을 자주 만나 청년교양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그그시 대책을 세워나갔다.

청년교양사업에 깊은 관심을

둘리는 초급당일꾼의 사업기풍은 사업소의 일꾼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일꾼들은 청년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갔다. 지배인 김장성동무는 청년동맹원들과 같이 살피고 하고 불르크도 나르면서 힘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보시고있다고 생각하면 시수를 높고나갈 의지가 생긴다 그 그들에게 열정과 용기를 안겨 주었다.

청년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은 때와 장소, 조건과 환경에 구애없이 엄이 근기있게 벌어졌다.

일할 때나 휴식할 때나 지어 된것에서도 청년동맹원들에 대한 교양사업은 끝없이 이어졌다.

당조직에서는 높은 책임성을 요구하는 온실관리사업을 통해 청년동맹원들에게 맡겨주었다. 청년동맹원들은 높은 기술과 기풍을 요구하는 화초관리방법을 직심스며 배우면서 온실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갔다.

당조직에서는 새것에 대한 지향과 탐구심이 강한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그들을 쓸모있는 인재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청년동맹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에 계획적으로

일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있을 때에는 가정을 방문하고 그들의 부모와 힘을 합쳐 교양사업을 꾸준히 벌였으며 생활상 제기되는 문제들은 온 사업소를 불러일으켜 즉시 해결해주었다.

부모없는 청년동맹원들이 생일을 맞을 때마다 부비서 김인욱동무를 비롯한 일꾼들은 생일상도 차려주고 여러가지 생활필수품과 식료품들도 마련하여 한 가득 안겨주었다.

청년들을 믿고 매 사람의 특성에 맞게 대담하게 일감을 맡겨주는것도 좋은 교양방법의 하나였다.

당조직에서는 높은 책임성을 요구하는 온실관리사업에 맡겨주었다. 청년동맹원들은 높은 기술과 기풍을 요구하는 화초관리방법을 직심스며 배우면서 온실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갔다.

당조직에서는 새것에 대한 지향과 탐구심이 강한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그들을 쓸모있는 인재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청년동맹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에 계획적으로

자서립산사업소의 동동계급이 년간계획을 지표별로 끝내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력과 사업소에서는 년초부 로력과 수단을 산란에 집중하고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통나부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항철작업소에서 남침지 승리의 기발을 휘날렸다. 작업소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통나부생산 년간계획을 기한전에 끝냈다.

베어내기 바쁘게 트랙터를 만가동시켜 베어낸 통나부생산에 로력수 실이냄으로써 1월말에 마감기준을 포함한 년간계획을 완전히 끝내는 자랑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과를 이룩하였다.

사업소에서는 연이 년간계획을 완수한 작업소들에서 역량과 수단을 성동작업소에 집중하여 설립전을 벌리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산란조건이 불리한 성동작업소도 년간계획완수자대에 오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었다.

지금 사업소에서는 이룩한 성과를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계속 높은 전투를 벌리고있다.

특파기자

화원에는 훌륭한 원예사들이 있다.

보통강구역 화초사업소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청년동맹원들이 태반이었다. 사업소주머니를 할 때에는 지쳐 쓰러지는 청년동맹원들도 나타났다. 작업열의는 점점 식어갔고 공사속도도 그만큼 떨어졌다.

초급당일꾼의 마음은 무거웠다. 탄원자들과도 하여 마음을 놓고 관심을 적게 돌리던 그들을 우리 당의 믿음직한 선군전선전투로 키울수 없고 또 그들의 아름다운 꿈도 리상도 꽃피워줄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이 기회에 사업소안의 청년동맹원들을 사상의 강자로 언에게 키우기로 결심하였다.

희의를 비롯한 여러 계기때마다 초급당일꾼은 동무들을 만난채로 연애와 공지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총정의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고 절절하게 이야기하면서 정치사업을 그들의 준비비도와 특성에 맞게 실속 있게 해나갔다. 그리고 청년동맹 초급일꾼들을 자주 만나 청년교양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그그시 대책을 세워나갔다.

청년교양사업에 깊은 관심을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전력생산을 늘이고있다. -만도연화발전소에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 6. 15공동선언발표 15돐기념

## 사진전람회 개막



【평양 6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6. 15공동선언발표 15돐기념 사진전람회가 개막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대통령과 상봉하시는 사진문헌이 전람회장엔 정중히 전시되어 있다.

전람회장에는 가장 열렬한 조국애, 민족애를 지니시고 거제의 숙원인 통일위업실현에 끝없는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전시되어 있다.

《역사적인 6. 15북남공동선언에서 명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남측 대통령특사를 접견하시었다》를 비롯한 사진문헌들은 분별사상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삼천리강도를 거세한 통일열기로 뛰어넘어 주시어 이룩하신 위대한 민족애의 화폭속에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에 오신 날조신의 각계층 인사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그들을 북남관계발전과 협력, 단합과 통일애국의 길로 이끌어 주신 령도적이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남조선현대그룹장주 최영희 회장을 만나시고 평등한 대화를 나누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남조선인사대표

단을 접견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를 비롯한 사진문헌들이 여러 여럿이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이시며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관문집에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철폐비담에서 인민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관문집에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철폐비담에서 인민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등의 사진문헌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일유관관철을 최대의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안아 오시기 위하여 성스러운 애국장정의 길을 걸으셨던 이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자욱을 가슴뜨겁게 전하고 있다.

전람회장에는 또한 6. 15공동선언 리행을 위하여 펼쳐나신 거제의 장엄한 투쟁모습과 미제와 남조선괴뢰파당의 반공화국압살과 동족대결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린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전람회개막식이 1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다.

양형섭동지, 김양건동지와 김영태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관계부서 일꾼들, 6. 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와 병민련, 병참학원 북측본부 성원들, 시내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6. 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인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국통일의 대강이며 리정표인 6. 15공동선언을 마련해주시고 그 리행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 북남관계에서 경이적인 전변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삼천리강도를 김정일열풍, 6. 15자주통일시대의 감격적인 화폭들이 펼쳐지게 된대 대하여 언급하였다.

애국애족의 대우단과 넓으신 포용력으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6. 15자주통일시대를 열어주시어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업적은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백두산대국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신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희망과 신심에 넘쳐 민족최고의 통일대강이며 자주통일의 기치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리행하기 위한 성스러운 통일애국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대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갖춘 감동속에 돌아보

# 시 초 바다양어 종을시구 어깨춤이 절로 난다

## 활금해의 해돋이

새 질경 새 기적들이 하늘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전설처럼 펼쳐지는 곁같은 이 세월

종구나 갈매기 너를너를 나래짓는 활금해의 창과 넘어 또다시 이 가슴을 흔드는 바다양어 기쁨의 노래

바람을 안은 돛처럼 푸른 이 마음 어찌새- 활금해의 물결위에 시흥을 실어 한껏 격정을 터치나니

울려오누나 설레이는 양어의 바다위에 환한 미소 없었으며 우리 원수님 시처럼 노래처럼 위수시던 그 음성 - 바다양어 종을시구 어깨춤이 절로 난다

미끈결결 잘나기두 대시양언어 우리네 황금해가 좋아 때를 지어 찾아왔다

수령선 저 너머 울려가는 《바다 만풍가》의 노래소리 남바다의 고기매를 불러왔다

애혜요 우리의 황금해는

문 용 철 배두의 칼바람에 기적의 돛을 단 만복의 바다 원수들의 전쟁소동도 압살책동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승리의 바다

이 땅위에 차받치는 바다향기 물고기를 받아안고 기뻐하는 인민들의 모습앞에 가슴뭉클 눈물을 적시던 어버이의 그 정이 파도치는 바다

풍어의 노래높은 온 바다를 그대로 인민들의 풍성한 식탁으로 펼쳐주고싶은 어버이의 불같은 그 사랑이 이렇이랑 금빛노을로 물드는 바다

두손에 소중히 떠담아보는 물에도 천금의 무게가 실리는 보물의 바다 인민의 행복이 일렁이는 우리네 바다엔 물이 아닌 황금보화가 출렁이네

은물결 금물결 파도위에 마음도 두들실 헤우 헤우 어쩔찌구 어깨춤도 절로 신경의 바다를 한몸에 안으신 원수님의 환하신 그 미소 만리창과우에 빛날것 흐르는 아 우리네 황금해에 해가 쬐는다

장군님 낚시에도 안아보시던 소원이 또 하나 이 바다에 꽃피었다고

철썩- 처썩썩- 파도소리 파도소리

바다위에 새겨진 자욱

결음마다 무수한 기념비를 안아올리며 땅위에 새겨온 병사들의 그 자욱 남바다위에 한번 찍으니 희한한 청춘애장이 펼쳐졌구나

멋들어지다 은빛 번쩍이는 연어메 무지개빛 칠색송어메 물결을 헤가르며 춤을 추는 그 모양

황포한 남바다를 걸들여온 전투의 낮과 밤 짐채같은 파도가 덮쳐들던 산악같이 다시 일떠서 싸운 병사들

행복의 씨앗처럼 소중한 물고기를 품어안고 고요히 설레는 바다

당의 뜻 반드시 불라는 그 심장들이 사나운 바다를 휘어잡았구나

길길이 솟구치던 갈기를 거머잡은

장군님 녀민 장군님 유흔을 저 바다 한끝까지 꽃피워가라고 위임없이 이 심장을 울려주는 아, 락산만의 파도소리

류 금 석 불굴의 용사들앞에 바다는 억년빛장 질렀던 가슴을 헤치고 만복의 대문을 열어젖혔다

푸른 물결 출렁이는 바다위에 병사들의 자욱은 보이지 않아도 물고기메 품어안고 일렁이는 황금해의 눈부신 파도위에 병사들의 그 자욱 보석처럼 빛나 거니

땅우에도 바다에도 병사들의 그 자욱 새겨지는 곳마다 장군님 녀민이 꽃피어나고 인민의 행복이 펼쳐지는 이 강산

아 당력도 배짱도 열정도 원수님을 닮은 이 나라 병사들의 자욱위에 천이랑 만이랑 기쁨이 물결친다 신경의 양어바다 끝없이 설레이나

# 락산만의 파도소리

갈매기도 그리움의 나래를 저어 창공높이 평양의 하늘을 찾아가 포구로 돌아오는 배들도 고고소리 목매어 울리는 락산만

그리워라 바다양어의 첫걸음 때여주신 우리 장군님 물고기메 굽이치는 이 청춘애장에 잠시라도 모실수만 있다면

잠시드는 눈길 들어 바라보는 가없는 저 바다 장군님 한평생 뿌리신 애국의 씨앗은 조국의 산과 들을 다 덮고 바다에도 행복의 이 절경을 펼쳤구나

철갑상어라

신문경 희귀한 자라뿐이라 이제는 대시양언어까지 인민에게 안겨주게 되었다고 아뢰

이면 만면에 환한 미소 지으시고 찾아오실것만 같은 우리 어버이

이제라도 저 도래골에 귀에 익은 야전차소리 들려올듯 금시라도 수령선 저 멀리 장군님 타신 배가 물결기를 날릴듯 이 마음속에 잠재울것 같은 그리움의 파도여

일렁이는 물결 가슴 뭉클 짓게 하는 경적의 새 소식 금수산기슭으로 메아리쳐가다오

락산이 이 바다에 대시양어 옮겨왔나 종을시구 바다양어 품어내는 물고기바다

남바다에 펼쳐진 희한한 신경 옥실대는 연어메 불만도 하다 늘실늘실 양어장에 진주물결 들먹이는 가슴에 가락을 친다

젊음으로 약속하는 내 조국은 소리로써 부흥의 함성을 몰아간다 우리의 양어는 드넓은 바다로!

수령님을 바라시던 녀민이 꽃피어떨찌구 양어바다 춤추는 바다 온종일 걸어도 힘들게 모르겠다고 환하게 웃으시던 원수님 그 기쁨에 이 가슴도 바다처럼 넓어지구나

또 한말 자고나면 가슴 뭉클 짓게 하는 경적의 새 소식 하루에 한해의 로고를 바쳐가서

한결음에 천리를 주름잡으시는 우리 원수님 인민이 꿈을 꾸기도 전에 눈앞에 펼쳐주시는 아름다운 세월

벽차라 저 풍만한 바다처럼 끝없이 출렁이는 우리의 행복 절집마다 바다향기 흘러들고 가슴마다 기쁨은 넘치며 내일이 풍성해지는 우리의 생활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장군님 뿌려주신 귀중한 씨앗들이 알알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니 가없는 사랑의 바다에 멋이로다 억만보화는 더 세차게 어화등등 환희의 금물결이 울려

젊음으로 약속하는 내 조국은 소리로써 부흥의 함성을 몰아간다 바다로!

우리 만복의 리정은 넓어라 더 좋은 레일로!

# 바다로! 더 좋은 레일로!

심 복 실 한결음에 천리를 주름잡으시는 우리 원수님 인민이 꿈을 꾸기도 전에 눈앞에 펼쳐주시는 아름다운 세월

벽차라 저 풍만한 바다처럼 끝없이 출렁이는 우리의 행복 절집마다 바다향기 흘러들고 가슴마다 기쁨은 넘치며 내일이 풍성해지는 우리의 생활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장군님 뿌려주신 귀중한 씨앗들이 알알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니 가없는 사랑의 바다에 멋이로다 억만보화는 더 세차게 어화등등 환희의 금물결이 울려

젊음으로 약속하는 내 조국은 소리로써 부흥의 함성을 몰아간다 바다로!

우리 만복의 리정은 넓어라 더 좋은 레일로!

심 복 실 한결음에 천리를 주름잡으시는 우리 원수님 인민이 꿈을 꾸기도 전에 눈앞에 펼쳐주시는 아름다운 세월

벽차라 저 풍만한 바다처럼 끝없이 출렁이는 우리의 행복 절집마다 바다향기 흘러들고 가슴마다 기쁨은 넘치며 내일이 풍성해지는 우리의 생활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장군님 뿌려주신 귀중한 씨앗들이 알알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니 가없는 사랑의 바다에 멋이로다 억만보화는 더 세차게 어화등등 환희의 금물결이 울려

젊음으로 약속하는 내 조국은 소리로써 부흥의 함성을 몰아간다 바다로!

우리 만복의 리정은 넓어라 더 좋은 레일로!

# 심금을 울려주는 뜨거운 진정

신인주는 하라돌공장 종합 작업반 담배포비서 리금화동무는 언제나 작업반원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다모며 그들과의 사연을 잘 알고 있다.

어느날 리금화동무가 기대공들인 김동무와 리동무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하여 마을사람들의 말발에 오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해냈다.

이때 리금화동무는 부모를 존경하는 자식들의 응당함 도리를 되여야 한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도 바로 자기의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에서부터 움드고 자라나게 된다고 일깨워주면서 꾸준히 교양하였다.

때로는 그들의 손에 맞닿는 음식들을 마련하여 돌려보내면서 부모에게 대접하라고 이르기도 하고 시간을 내어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을 잘 꾸려주라고 다른 동무들을 불러주기도 하였다.

담배포비서의 뜨거운 마음에 감동된 김동무와 리동무는 그후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해져 마을사람들속에서 좋은 평을 받게 되었다.

작업반의 직맹인 김동무는 작업반원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결함이 있었다.

리금화동무는 그를 자주 만나 조직과 집단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우쳐주면서 동무들과의 관

계를 잘 가지도록 이끌어주었다.

그는 김동무의 아들이 인민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을 때에는 작업반장 오선옥동무와 토의하고 작업반원들과 함께 그를 적극 도와 주었다. 이를 계기로 조직과 집단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깊이 느끼게 된 김동무는 그후 동무들을 위한 일에 적극 뛰어들게 되었고 많은 일도 다 잘해나가기 되었다.

이렇게 진정을 쏟아부으며 군중과의 사연을 잘해나가는 리금화동무의 노력속에 작업반은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집단으로, 전투력이 강한 집단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본사기자

# 우리 선수들 련일 금메달 획득

2015년 아시아청소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이 2015년 아시아청소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련일 금화국기를 높이 날리고 있다.

12일에 진행된 경기들에서 선수들은 우리 당의 품속에서 주체적인 경기전법을 체득하며 레슬링강자들을 준비해나가는 자기의 우수한 정신력과 육체기능적 적응력을 잘 보여주었다. 리세웅

선수는 남자고전형 54kg급경기에서 우즈베키스탄, 일본, 이란선수들을 누르고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으며 오경형선수도 여자레슬링 49kg급경기에서 다양한 기술로 맞다든 선수들을 압도적으로 이기고 우승하였다.

한편 여자레슬링 43kg급, 46kg급경기에서 김수정, 박미경선수들이 각각 은메달을 받았다.

이에 앞서 조혁철, 문수정선수들은 남자고전형 42kg급경기과 여자레슬링 40kg급경기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국제체육무대에서 레슬링선수들이 거두어온 성과는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돌을 승리의 대추처럼 높이게 장식하기 위해 펼쳐나신 천만군민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 수리아농민총동맹대표단 환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하마드 압부드 알 사우드위원장 하였다. 환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을 단장으로 하는 수리아농민총동맹대표단이 환경대 방문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최고검찰

로씨야방문 최고검찰소대표단 출발

로씨야를 방문하기 위해 장병규 소대표단이 13일 평양을 출발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최고검찰

로씨야에 갔던 중앙은행대표단 귀국

로씨야의 캄프트 귀국하였다. 베제르부르그에서 진행된 제24국제은행대회에 참가하였던 김권국 총재를 단장으로 하는 중앙은행대표단이 13일

인류자주위업수행을 위한 길에 도움을 다 바치시어 후손민대에 불멸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정사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 보았다.

그들은 환경대정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단경부의 혁명사적들을 참관하였다.

단장은 조선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환경대를 방문한것을 더없는 영광, 최대의 긍지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이곳을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인민들이 찾아와 배워야 할수있다는 뜻이 있다고 말하였다.

대표단은 이밖에 주체사상함과 평양시비석공장, 통라공공어판 등을 참관하였다.

비행장에서 리철 최고검찰소 제1부소장과 알렉산드르 미체고라 주조 로씨야어련방 특별전권 대사가 전송하였다.

환경대 방문 최고검찰소 제1부소장과 알렉산드르 미체고라 주조 로씨야어련방 특별전권 대사가 전송하였다.

비행장에서 리철 최고검찰소 제1부소장과 알렉산드르 미체고라 주조 로씨야어련방 특별전권 대사가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왜 땀나무림 조성을 중시하였는가

신천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그들은 자책감으로 가슴이 저러 드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해마다 온에서 많은 로력을 동원하여 나무를 심는것만큼 산림면적이 늘어나야 하였으나 아직도 잠깐동안 있거나 나무없는 산이 수천정보나 되며대문이었다.

로해해보니 여러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기본은 땀나무림으로 일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찍어내던 것이었다.

사실 지난 기간 일군들은 산이 군면적의 36%밖에 안되고 적당하지 않은것으로 하여 땀나무림 조성에 적지 않은 힘을 넣었다.

그러하여 여러 지역에 아카시아나무를 조성하여 해마다 다 적지 않은 땀나무를 해결하고 있다.

이 사실을 놓고 일군들은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군에는 수만세대가 땀나무

를 리용하고 있었다. 한세대가 한해에 평균 4㎡의 땀나무를 쓰는데 6~7년후부터는 말장, 달구지체 등 영농자재도 마련하고 있었다.

한편 땀나무림면적이 적은 은대도 있지만 일부 지역에는 아카시아나무가 있다고 해도 들성들성 있었다. 결과 수천㎡의 땀나무가 부족되었다.

그렇다면 땀나무림을 몇정 보 더 조성해야 이 문제를 풀수 있겠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을 거듭하던 일군들은 월성리에서 오래전부터 자재로 땀나무를 해결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일군들은 현지에서 나가 산림감독원을 만났다.

알고보니 아카시아나무를 심어 땀나무림이 여러가지 많은 영농자재와 집집승적이 해를 해결하고 있었다.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았다. 아카시아나무를 베게 심은 후 3~4년후부터 수내내는 방법

으로 많은 땀나무를 집집승적이 해를 해결하고 있었다.

특히 6~7년후부터는 말장, 달구지체 등 영농자재도 마련하고 있었다.

한편 땀나무림면적을 늘이는것도 중요하지만 보다는 효과적임을 알게 되었다. 결과 수천㎡의 땀나무가 부족되었다.

그렇다면 땀나무림을 몇정 보 더 조성해야 이 문제를 풀수 있겠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을 거듭하던 일군들은 월성리에서 오래전부터 자재로 땀나무를 해결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일군들은 현지에서 나가 산림감독원을 만났다.

알고보니 아카시아나무를 심어 땀나무림이 여러가지 많은 영농자재와 집집승적이 해를 해결하고 있었다.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았다. 아카시아나무를 베게 심은 후 3~4년후부터 수내내는 방법

땀나무를 많이 조성하여야 하였다.

이로부터 군일군들은 산이 많은 농장들의 일부 지역을 땀나무로 아카시아나무를 조성하고 땀나무 영농자재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부 로력을 그곳에 보내어 그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산림을 보호관리하도록 하였다.

결과 가까운 앞날에 땀나무림을 볼수 있게 된것은 물론 창성이땀나무림, 갖나무림, 세일소나무림조성과 보호사업에서도 성과를 거둘수 있는 전방을 열어놓았다.

군일군들의 경험은 당의 요구대로 땀나무림을 푸는 데 힘을 넣어 아카시아나무를 조성하여 땀나무 영농자재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군에는 산이 없지 않으나 한두 개의 야산만 있는 농장들이

# 오동나무의 리용과 그 재배기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년대로 산림조성사업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쓸모있는 나무들로 목재, 기름나무림, 산과싹, 밤나무림, 팔프 및 종이원료림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오동나무는 현상과에 속하는 일지는 넓은잎나무이다.

오동나무는 생태환경에서 볼 때 적응성이 좋고 매우 빨리 자란다. 7~8년이면 가슴높이직경이 24~30cm에 도달한다. 오동나무는 가벼우면서도 무리가 아님 나무가 잘 병해되지 않고 가공하기 쉬우므로 고급건구와 가구, 악기재료로 널리 쓰인다.

오동나무의 잎과 껍질의 우유풀은 설사약이, 열내린 등의 약효가 있으며 열매는 기침과 천식, 고혈압병과 신장염에 효과가 있다.

오동나무의 잎과 껍질에는 영양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집집승들의 좋은 먹이로도 쓸린다.

우리 나라에는 여러종의 오동나무들이 있다. 오동나무류는 높이 15

~20m 지름이 품종에 따라 형태적특징과 자라는 속도, 추위견딜성 등 생물생태학적특징에서 일련의 차이가 있다.

오동나무재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적지적수, 적기적수의 원칙에서 품종을 바로 선택하는것이다.

오동나무는 자강도와 광강도의 높은 산지대를 제외한 해발 200m이하의 지역에서, 오동나무 《연관 1호》는 해발 1000m이하의 중서부의 사리원이남과 동부의 금야이 남쪽에서, 오동나무 《순영 1호》는 정주이남의 중서부와 북청이남의 동부지역에서 재배할수 있다.

오동나무의 재배적지는 토심이 50cm이상, 지하수위가 1.5m이하이고 물이 잘 빠지는 모래흙 또는 배흙땅이어야 한다.

나무심기를 할하되 구덩이이름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1m, 1m, 0.8m 되게 파고 질 좋은 부식토를 15~30kg 깔아야 한다. 나무모는 대생지에 따라 1년생나무모를 기본으로 하고 영양단지로 모를 할수 있다.

나무심는 밀도는 집중적으로 심어야 할 곳인 경우 정묘당 600~1000g

루, 개별적으로 심거나 한줄로 심을 때에는 나무사이거리가 3~4m 되게 심는것이 좋다.

오동나무판리는 심은 후 2~3년간 나무양묘원들기를 나무자라기특성에 맞게 하여 첫가지에 대한 높이를 3~5m 되게 끝고 높이를 없이 키운 다음 영양관리, 보호관리를 잘하여 가슴높이 직경이 10년째에 35~50cm이상 이르게 하는것이 좋다. 심은 해에는 나무 주위직경이 2m 되게 2차 이상 땅뒤져주기과 김매기를 진행하며 땅다루기와 영양판리는 림분부항경영방법으로 하는것이 좋다.

오동나무의 원대높이가 보장된 큰 나무판리는 집약재배수종의 요구에 맞게 땀나무를 잘하여 무리 없이 자라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병해충피해 막아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산들을 보물산, 황금산으로 만들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경제적기치가 큰 오동나무를 곳곳에 많이 심어야 한다.

산림과학원 경제림연구소 리성남

린산군 산림경영소에서 립산군산림경영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체의 힘으로 병해충구제에 좋은 수백kg의 병해충농약을 생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생물농약과 화학농약을 리용하거나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는 리로운 동물들을 보호증식시키는것과 같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없애야 합니다.》

산림부전투자를 힘있게 벌릴때 대한당의 뜻을 받들고 지배인 김희훈동무는 생물농약을 적극 생산리용할것을 결심하였다.

사실 일군들은 이미전에 생물농약생산지지를 꾸려놓았다. 그런데 생산된 농약은 효능이 높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잡균에 의해 오염되게 때문이었다. 그것을 23~28℃의 온도를 보장하면서 10시간동안 무지놓았다가 퍼놓으면 된다.

생물농약을 나무뭍의 가랑이를 헤치고 그밑의 흙과 1:30~50의 비율을 섞어 뿌려주면 병해충을 없앨수 있다.

지금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애써 조성한 산림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힘을 넣고 있다.

황 철 민

모든 산을 보물산, 황금산이로 만들자



# 공동선언리행은 북남관계개선의 근본열쇠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5년이 다가왔다.

6.15공동선언의 발표는 장장 반세기가 상주되어온 분산과 대결의 위기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는 특대사건이었다. 조국통일의 원칙과 실현방도를 우리 민족모두의 합의로 승화시킨 기념비적문건, 민족최고의 통일대강인 공동선언의 발표이후 북남관계에서 이 전시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놀라운 성과들이 연이어 이루어졌다.

6.15통일시대의 갈피마디에 아로새겨진 소중한 추억, 감동의 화폭들은 이루어 헤아릴수 없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통일의 회로로 가슴들머리엔 그레와는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고있다. 분열의 원한서린 삼천리강토에 화해와 단합의 불빛을 뿌려주고 민족의 통일열기를 한껏 북돋아준 대화와 협력은 간데 없고 이 땅을 감도는것은 피로당국이 외세와 작당하여 붙여온 싸늘한 대결의 냉기와 전쟁의 흉어구름뿐이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사태가 아닐수 없다.

자주를 부정해야 미국에 붙어살수 있고 평화를 유린해야 대결정착을 정당화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피로보수세당은 저들의 더러운 잔병을 부지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악랄하게 부정하면서 반통일책동을 기습을 부리었다. 피로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하여 <리행할 무가 없다.>고 체제했어 <6.15의 통일은 절대로 안된다.>고 피대를 돌구면서 반공화국모략과 북침전쟁연습책동으로 대화와 협력을 파탄시키며 북남사이의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었다. 한편 북남선언을 지지하고 자주통일을 지지하는 통일운동단체들과 인사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에 미처남지않았다.

들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말살하려고 발판한 결과 북남사이에서 대결과 적대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거레의 통일념원은 무참히 짓밟혔으며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의 위기는 극도로 고조되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쌓아올린 6.15통일시대의 공동 탑을 악착스럽게 무너뜨린 역적세대에 대한 온 거레의 저주와 분노는 하늘에 닿았다.

동족대결의 찬바람속에 북남관계의 모든 길이 막혀버리고 전쟁위기가 치솟고 있는 오늘의 기막힌 현실은 6.15통일시대의 소중함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다. 하기에 온 거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야애 화해와 단합의 합심 높여온 나날들을 잊지 못하며 6.15공동선언대를 반드시 살려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이다.

뒤를 돌아보고 앞을 내다볼수록 더없이 소중한 북남선언들이고 우리 민족끼리이다. 6.15의 기치보다 더 좋은 평화를 주고 통일, 민족번영의 표제는 없으며 6.15가 가리킨 길보다 더 나은 길은 없다. 6.15통일시대의 환희를 추억으로만 남겨둘수 없다. 북남사이에서 연일 크고작은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고 북남관계를 전진시키며 민족의 요구와 념원에 맞게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원칙과 구체적인 방도들이 명시되어있는 6.15의 기치야애 화해와 단합의 합심 높여온 나날들이 합쳐 제2의 6.15통일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땅에서 전쟁의 위기를 가지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새로운 지평선을 여는 유일한 출로는 오직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성실히 리행하는것뿐이다.

력사와 현실이 명백히 보여주다시피 남조선당국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지 않고 그 리행의 길에

나서지 않는다면 북남관계의 전도는 절대로 밝아질수 없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온 거레가 존중하고 신성시하는 최고의 북남관계문건으로서 그 무엇도 그우에 올려놓을수 없다. 거레의 지향과 념원이 구현된 자주통일의 대강인 북남선언들을 무시하고 그 리행을 거부하는것은 용납 못할 반통일역적행위이다. 그것은 동족을 부정하고 자주통일을 부정하는 망동으로서 대결과 전쟁방에 가져 올것이다.

남조선피로들이 외세 추종과 동족대결을 일삼으면서 북남관계개선을 떠드는것은 한갓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애국애족과 애국배족이 랑립될수 없듯이 민족자주와 외세 추종, 민족단합과 동족대결은 절대로 랑립될수 없다. 지금 피로대당은 말로는 <대화>와 <민간교류>에 대해 떠들면서 실제로는 외세와 함께 반공화국책소동과 <인권>모략, 북침전쟁연습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면서 대화와 협력의 앞길에 엄청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우리는 북남선언들과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을 든든히 틀어쥐고 철저히 고수해나갈것이며 거기에서 탈선하려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추호도 묵과하지 않고 단호히 징부서버릴것이다.

6.15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나아가자. 바로 이것이 6.15공동선언발표 15년을 맞으며 더욱 강렬히 불타오르는 온 거레의 지향이고 확고한 의지이다. 격렬히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 나가려는것은 오늘 우리 거레의 강렬한 지향이며 더는 되돌수 없는 시대적과제로 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거레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반드시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북남선언들의 고수, 리행을 위한 중

단없는 완강한 투쟁속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아침은 밝아오게 될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거레가 6.15의 기치를 번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투쟁해나갈 때 조국통일운동이 활력있게 전진할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람없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자주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념원을 정확히 반영하고있을뿐아니라 지난 시기의 모든 북남합의들을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강령적지침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 대한 온 거레의 사회적요구와 리해관계를 실현하는데서 그 무엇보다 이를 대신할수 없다. 북남선언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철저히 리행되어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키고 리행해나가기 북남관계개선과 평화, 통일의 넓은 길이 열리지만 6.15를 부정하며 말살하려 한다면 통일의 길은 멀어지고 불행과 참화밖에 벗어날것은 없다는것을 우리 거레는 똑똑히 새겨안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온 거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바로 보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반대하는 반통일적저세와 림장을 버려야 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동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동족의 노력에 호응해나서야 한다. 피로대당이 이것을 외면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계속 광분한다면 온 민족의 강력한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며 총망에는 멸망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게 될것이다.

해내외의 온 거레는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철저히 짓부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관철해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허영민

# 대결을 정당화하기 위한 파렴치한 술책

지금 남조선피로들이 그 무슨 <대화>와 <인권>모략소동으로 찬물을 끼얹고 북침전쟁도발의 흉포성을 터치는것으로 대담한것이 과연 누구인가. 대화와 관계개선의 손을 내미는 동족을 악의에 차서 헐뜯으며 외세와 야합하여 대결광기를 부린자들이 언제 그랬던가 <대화노력>과 <민간교류지원>을 떠벌이는것을 보면 낮가죽이 골발뽀뽀보다 더 두껍다.

<대화>를 광고하면서 돌아앉아서 <북의 도발>을 떠들고 <우정>나발을 불어대며 상대방을 반대하는 불장난소동을 하들과 땅, 바다에서 요란스레 벌려놓고있는것이 바로 남조선피로들이다. 며칠전에도 피로합동참모본부 외장 최윤희외도는 대령양지역 미군총사령관과 함께 서해열염지역과 가까이 있는 피로해군 2함대가 <북의 도발>에 대응한 남조선미군련합부대의 <우정>에 대해 피대를 돌구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대규모합동사격훈련을 비롯한 각종 북침전쟁연습이 계속 요란하게 벌어지고있다.

현실은 남조선피로들이 들고나오는 <대화>와 <인권>모략이 대화와 협력을 위한것이 아니라 외세와 작당하여 우리 공화국을 정치군사적으로 압살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립증해주고 있다.

피로들의 이러한 책동에는 북남관계를 침략한 파국상태에 처하게 한 책인의 목적이 화해와 단합, 관계개선을 도모하기 위한것일진대 북남과 대결을 낳는 압박으로 어떻게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수 있겠는가. 더우기 그마귀 불순한 흥제가 우리에게 통할수 있다고 생각한것자체가 어리석다. 피로대당이 이것을 외면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계속 광분한다면 온 민족의 강력한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며 총망에는 멸망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게 될것이다.

해내외의 온 거레는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철저히 짓부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관철해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온 거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바로 보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반대하는 반통일적저세와 림장을 버려야 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동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동족의 노력에 호응해나서야 한다. 피로대당이 이것을 외면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계속 광분한다면 온 민족의 강력한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며 총망에는 멸망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게 될것이다.

해내외의 온 거레는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철저히 짓부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관철해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온 거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바로 보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반대하는 반통일적저세와 림장을 버려야 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동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동족의 노력에 호응해나서야 한다. 피로대당이 이것을 외면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계속 광분한다면 온 민족의 강력한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며 총망에는 멸망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게 될것이다.

해내외의 온 거레는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철저히 짓부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관철해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온 거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바로 보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반대하는 반통일적저세와 림장을 버려야 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동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동족의 노력에 호응해나서야 한다. 피로대당이 이것을 외면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계속 광분한다면 온 민족의 강력한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며 총망에는 멸망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게 될것이다.

해내외의 온 거레는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철저히 짓부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관철해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만악의 근원 미군은 떠나라!

## 6.15 민족공동행사를 파탄시킨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 남조선의 민권련대가 격분 발표

남조선의 민주민생평화통일추진련대(민권련대)가 3일 <6.15민족공동행사를 파탄시킨 박근혜(정부)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격문을 발표하였다.

격문은 6.15공동선언발표 15주년 조국해방 70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 남과 북이 6.15민족공동행사를 서울에서, 8.15민족공동행사를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방해로 하여 남북합의는 물론 6.15민족공동행사가 파탄되었다고 규탄하였다.

이로써 현(정부)가 남북관계를 <정권>안정, 통치안정에 이용하려고 할뿐 진심으로 민간교류를 보장하고 관계를 개선하는데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단죄하였다.

박근혜(정부)가 지금까지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한 일이 대체 무엇인가고 하면서 격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박근혜(정부)는 <5.24조치>를 아직까지 해제하지 않았고, 남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립장 역시 한번

도 제대로 표명하지 않았다. 이런 행태는 6.15민족공동행사추진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6.15민족공동행사를 서울에서, 8.15민족공동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하는것이 과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정부>는 8.15민족공동행사를 서울개최를 강요하여 합의의 교란시켰다.

사태는 6.15민족공동행사와 판에 이르렀다.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6.15공동선언을 리행할 의지가 있었다면 사태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것이다.

6.15민족공동행사를 방해한 박근혜(정부)가 진정 바라는것은 무엇인가?

허울뿐인 공약과 사랑법으로 민족을 현혹하면서 전민족의 념원인 통일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으며 <흡수통일>말상에 계속 대립되고있는 박근혜(정부)의 탈피를 이념 민족공동행사가, 파탄과정에 날들이 드러났다.

우리는 민족공동행사를 파탄시킨 박근혜(정부)를 반드시 심판할것이다.

남조선의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대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량심수후원회,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리대, <기독교평화행동동맹>을 비롯한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이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피로대당을 지지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구호를 발표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현(정권)이 <유신>과 <부패>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세력과 민족의 인권을 짓밟았다고 비난하였다.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세월>호학살사건과 전염병사태로 하여 참사, 무능(정권)의 정체는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고 단죄하였다.

격분한 민중이 박근혜를 오늘의 박정희, 전두환, 리명박이라고 규탄하며 현(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투쟁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미군의 범죄적인 탄저탄 반입행위로 하여 인종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았다고 <정부>는 말한 바대로 못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16.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군사독재(정권)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자객없는 독재(정권), 무지무능한 박근혜, 미국의 <싸드>배치와 북침전쟁에 동의하는 <대통령>을 용납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4.19와 6월항쟁을 계승하여 미군을 몰아내고 현(정권)을 퇴진시키며 자주통일을 이룩하자 호소하였다.

단체들은 각개 오늘의 금남로 인파광화에 모여 사태를, 민주주파, 민생파, 남북관계파, 반통일(정권)인 박근혜

남조선의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대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량심수후원회,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리대, <기독교평화행동동맹>을 비롯한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이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피로대당을 지지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구호를 발표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현(정권)이 <유신>과 <부패>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세력과 민족의 인권을 짓밟았다고 비난하였다.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세월>호학살사건과 전염병사태로 하여 참사, 무능(정권)의 정체는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고 단죄하였다.

격분한 민중이 박근혜를 오늘의 박정희, 전두환, 리명박이라고 규탄하며 현(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투쟁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미군의 범죄적인 탄저탄 반입행위로 하여 인종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았다고 <정부>는 말한 바대로 못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16.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군사독재(정권)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자객없는 독재(정권), 무지무능한 박근혜, 미국의 <싸드>배치와 북침전쟁에 동의하는 <대통령>을 용납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4.19와 6월항쟁을 계승하여 미군을 몰아내고 현(정권)을 퇴진시키며 자주통일을 이룩하자 호소하였다.

단체들은 각개 오늘의 금남로 인파광화에 모여 사태를, 민주주파, 민생파, 남북관계파, 반통일(정권)인 박근혜

남조선의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대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량심수후원회,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리대, <기독교평화행동동맹>을 비롯한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이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피로대당을 지지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구호를 발표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현(정권)이 <유신>과 <부패>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세력과 민족의 인권을 짓밟았다고 비난하였다.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세월>호학살사건과 전염병사태로 하여 참사, 무능(정권)의 정체는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고 단죄하였다.

격분한 민중이 박근혜를 오늘의 박정희, 전두환, 리명박이라고 규탄하며 현(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투쟁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미군의 범죄적인 탄저탄 반입행위로 하여 인종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았다고 <정부>는 말한 바대로 못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16.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군사독재(정권)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자객없는 독재(정권), 무지무능한 박근혜, 미국의 <싸드>배치와 북침전쟁에 동의하는 <대통령>을 용납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4.19와 6월항쟁을 계승하여 미군을 몰아내고 현(정권)을 퇴진시키며 자주통일을 이룩하자 호소하였다.

단체들은 각개 오늘의 금남로 인파광화에 모여 사태를, 민주주파, 민생파, 남북관계파, 반통일(정권)인 박근혜

# 남조선 시민사회, 종교단체들 피로정권퇴진, 미군철수를 주장하여 구호 발표

## 남조선의 민권련대가 격분 발표

### 남조선의 민권련대가 격분 발표

남조선의 민주민생평화통일추진련대(민권련대)가 3일 <6.15민족공동행사를 파탄시킨 박근혜(정부)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격문을 발표하였다.

격문은 6.15공동선언발표 15주년 조국해방 70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 남과 북이 6.15민족공동행사를 서울에서, 8.15민족공동행사를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방해로 하여 남북합의는 물론 6.15민족공동행사가 파탄되었다고 규탄하였다.

이로써 현(정부)가 남북관계를 <정권>안정, 통치안정에 이용하려고 할뿐 진심으로 민간교류를 보장하고 관계를 개선하는데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단죄하였다.

박근혜(정부)가 지금까지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한 일이 대체 무엇인가고 하면서 격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박근혜(정부)는 <5.24조치>를 아직까지 해제하지 않았고, 남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에 대한 지지립장 역시 한번

도 제대로 표명하지 않았다. 이런 행태는 6.15민족공동행사추진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6.15민족공동행사를 서울에서, 8.15민족공동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하는것이 과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정부>는 8.15민족공동행사를 서울개최를 강요하여 합의의 교란시켰다.

사태는 6.15민족공동행사와 판에 이르렀다.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6.15공동선언을 리행할 의지가 있었다면 사태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것이다.

6.15민족공동행사를 방해한 박근혜(정부)가 진정 바라는것은 무엇인가?

허울뿐인 공약과 사랑법으로 민족을 현혹하면서 전민족의 념원인 통일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으며 <흡수통일>말상에 계속 대립되고있는 박근혜(정부)의 탈피를 이념 민족공동행사가, 파탄과정에 날들이 드러났다.

우리는 민족공동행사를 파탄시킨 박근혜(정부)를 반드시 심판할것이다.

남조선의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대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량심수후원회,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리대, <기독교평화행동동맹>을 비롯한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이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피로대당을 지지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구호를 발표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현(정권)이 <유신>과 <부패>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세력과 민족의 인권을 짓밟았다고 비난하였다.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세월>호학살사건과 전염병사태로 하여 참사, 무능(정권)의 정체는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고 단죄하였다.

격분한 민중이 박근혜를 오늘의 박정희, 전두환, 리명박이라고 규탄하며 현(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투쟁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미군의 범죄적인 탄저탄 반입행위로 하여 인종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았다고 <정부>는 말한 바대로 못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16.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군사독재(정권)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자객없는 독재(정권), 무지무능한 박근혜, 미국의 <싸드>배치와 북침전쟁에 동의하는 <대통령>을 용납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4.19와 6월항쟁을 계승하여 미군을 몰아내고 현(정권)을 퇴진시키며 자주통일을 이룩하자 호소하였다.

단체들은 각개 오늘의 금남로 인파광화에 모여 사태를, 민주주파, 민생파, 남북관계파, 반통일(정권)인 박근혜

# 미국은 생화학전쟁계획과 무기를 전면 폐기하라

## 남조선 각계층 단체들 항의 투쟁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이 서울에서 미국의 생화학전쟁책동을 규탄하는 투쟁을 벌였다.

6일 민족공동행사를 서울준비위원회는 6.15대학생실천단은 미국의 탄저탄반입행위를 단죄하는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세군부시용의 위험성을 알리며 무기를 폐기하여 통치안정 기지않에 이쁜 시위자들은 살아있는 탄저탄을 끌어들이 실험을 강행한 미국의 반인륜적만행을 격분해 넘쳐 성토하였다.

미국이 남의 땅에서 생화학무기실험을 하는데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고 하면서 당국이 이러한 미국과의 동맹만을 떠들며 탄저탄반입사건을 외면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미국이 남조선에 있는 미군기지연구소들에서 <생화학전대비>의 명목으로 실험하고있는 <슈퍼미제약>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명명하였다.

시위가 끝난 다음 6.15대학생실천단 선원들은 광화문 주변에서 구관집회를 가지고 위험한 생화학무기가 들어와도 미국과의 불평등관계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수 없다고 하면서 남조선미국(정정정)을 당장 개정하자고 요구하였다.

이어 단체는 미국대사관에 항의문을 들어냈다. 항의문을 통해 단체는 미국이 이번 탄저탄 반입행위를 두고 <말어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지에 있어 공

격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이를 밝혀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녀성, 민생, 종교, 대학생단체들을 비롯한 근 70개의 각계층 단체들이 8일 남조선경기도 미군 군사령부앞에서 미국의 생화학전쟁책동을 규탄하는 공동기자 회견을 가지었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미국이 탄저탄과 함께 보물리누스까지 남조선에 불법적으로 끌어들이 실험해왔을뿐아니라 <슈퍼미제약>에 따라 2013년부터 주기적으로 생화학무기반입, 실험을 반복해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미국이 매우 공세적인 북침생화학전쟁전략을 세우고 그에 필요한 무력과 군사연습을 강

화하고있는것을 통해 앞으로도 생화학무기실험을 계속할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었다고 주장하였다.

해의주둔 미군부대들중 화학대대를 두고있는것이 남조선의 미조선안에서 유일한 정교한 생화학전대비라고 단죄하였다.

조선반도가 핵무기뿐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리용되는 전장으로, 전세계 미군에 제분생 생화학전쟁전략과 무기의 시험장으로 되는것을 결코 허용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단체들은 미국이 생화학전쟁 계획 및 무기를 전면 폐기하며 지구각지의 피에 대해 사회화라고 요구하였다.

남조선의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대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량심수후원회,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리대, <기독교평화행동동맹>을 비롯한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이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피로대당을 지지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구호를 발표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현(정권)이 <유신>과 <부패>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세력과 민족의 인권을 짓밟았다고 비난하였다.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세월>호학살사건과 전염병사태로 하여 참사, 무능(정권)의 정체는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고 단죄하였다.

격분한 민중이 박근혜를 오늘의 박정희, 전두환, 리명박이라고 규탄하며 현(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투쟁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미군의 범죄적인 탄저탄 반입행위로 하여 인종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았다고 <정부>는 말한 바대로 못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16.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군사독재(정권)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자객없는 독재(정권), 무지무능한 박근혜, 미국의 <싸드>배치와 북침전쟁에 동의하는 <대통령>을 용납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4.19와 6월항쟁을 계승하여 미군을 몰아내고 현(정권)을 퇴진시키며 자주통일을 이룩하자 호소하였다.

단체들은 각개 오늘의 금남로 인파광화에 모여 사태를, 민주주파, 민생파, 남북관계파, 반통일(정권)인 박근혜

남조선의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대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량심수후원회,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리대, <기독교평화행동동맹>을 비롯한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이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피로대당을 지지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구호를 발표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현(정권)이 <유신>과 <부패>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세력과 민족의 인권을 짓밟았다고 비난하였다.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세월>호학살사건과 전염병사태로 하여 참사, 무능(정권)의 정체는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고 단죄하였다.

격분한 민중이 박근혜를 오늘의 박정희, 전두환, 리명박이라고 규탄하며 현(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투쟁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미군의 범죄적인 탄저탄 반입행위로 하여 인종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았다고 <정부>는 말한 바대로 못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16.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군사독재(정권)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자객없는 독재(정권), 무지무능한 박근혜, 미국의 <싸드>배치와 북침전쟁에 동의하는 <대통령>을 용납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4.19와 6월항쟁을 계승하여 미군을 몰아내고 현(정권)을 퇴진시키며 자주통일을 이룩하자 호소하였다.

단체들은 각개 오늘의 금남로 인파광화에 모여 사태를, 민주주파, 민생파, 남북관계파, 반통일(정권)인 박근혜

남조선의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대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량심수후원회,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리대, <기독교평화행동동맹>을 비롯한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이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피로대당을 지지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구호를 발표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현(정권)이 <유신>과 <부패>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세력과 민족의 인권을 짓밟았다고 비난하였다.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세월>호학살사건과 전염병사태로 하여 참사, 무능(정권)의 정체는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고 단죄하였다.

격분한 민중이 박근혜를 오늘의 박정희, 전두환, 리명박이라고 규탄하며 현(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투쟁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미군의 범죄적인 탄저탄 반입행위로 하여 인종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았다고 <정부>는 말한 바대로 못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16.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군사독재(정권)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자객없는 독재(정권), 무지무능한 박근혜, 미국의 <싸드>배치와 북침전쟁에 동의하는 <대통령>을 용납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4.19와 6월항쟁을 계승하여 미군을 몰아내고 현(정권)을 퇴진시키며 자주통일을 이룩하자 호소하였다.

단체들은 각개 오늘의 금남로 인파광화에 모여 사태를, 민주주파, 민생파, 남북관계파, 반통일(정권)인 박근혜

# 전교조탄압책동을 반대하여 남조선교원로조 투쟁 전개

## 일본수사당국의 파썸적인 총련탄압책동을 단죄규탄하는

### 제일 본조선인강기 지방긴급집회 진행

남조선의 전교조직원로동조합(전교조)이 5월 30일 서울역광장에서 집회를 가지고 피로당국의 전교조탄압책동을 규탄하였다.

단체는 결의문에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해고된 교원이 로조에 가입할수 없다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원로조법>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로조의 구성원문제는 단체의 독자적활동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며 전교조주요기의 일탈이라고 단죄하였다.

박근혜(정권)의 전교조탄압책동과 법외로조화기도를 막아내고 로조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여야합의로 공무원연금개안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면서 박근혜(정권)

과 정치권이 야합하여 공무원의 연금을 감탈하고 자본의 리윤추구만을 위한 연금개혁을 강행하였다고 규탄하였다.

박근혜(정권)의 교육과관정책으로 교육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정부>의 전교조주요기와 교육과관에 맞서 투쟁하여야 함된 교육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살릴수 있다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이어 1일에 전교조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련대하여 피로당국의 전교조탄압책동을 막아낼 의지를 표명하였다.

박국호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장과 강기지방의 총련본부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과 동포들이 집회에 참가하였다.

박국호부회장은 일본 교도부 경찰본부가 주도하는 합동수사본부가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 사장과 관계자들을 부당하게 체포한데 이어 교도부지방감찰당국이 그들중 2명을 법원에 기소하는 파썸적책동을 강행하였다고 규탄하였다.

법원기소만행은 인륜도 다 내

남조선의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대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량심수후원회,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리대, <기독교평화행동동맹>을 비롯한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이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피로대당을 지지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구호를 발표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현(정권)이 <유신>과 <부패>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세력과 민족의 인권을 짓밟았다고 비난하였다.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세월>호학살사건과 전염병사태로 하여 참사, 무능(정권)의 정체는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고 단죄하였다.

격분한 민중이 박근혜를 오늘의 박정희, 전두환, 리명박이라고 규탄하며 현(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투쟁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미군의 범죄적인 탄저탄 반입행위로 하여 인종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았다고 <정부>는 말한 바대로 못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16.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군사독재(정권)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자객없는 독재(정권), 무지무능한 박근혜, 미국의 <싸드>배치와 북침전쟁에 동의하는 <대통령>을 용납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4.19와 6월항쟁을 계승하여 미군을 몰아내고 현(정권)을 퇴진시키며 자주통일을 이룩하자 호소하였다.

단체들은 각개 오늘의 금남로 인파광화에 모여 사태를, 민주주파, 민생파, 남북관계파, 반통일(정권)인 박근혜

남조선의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대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량심수후원회,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리대, <기독교평화행동동맹>을 비롯한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이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피로대당을 지지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구호를 발표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현(정권)이 <유신>과 <부패>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세력과 민족의 인권을 짓밟았다고 비난하였다.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세월>호학살사건과 전염병사태로 하여 참사, 무능(정권)의 정체는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고 단죄하였다.

격분한 민중이 박근혜를 오늘의 박정희, 전두환, 리명박이라고 규탄하며 현(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투쟁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미군의 범죄적인 탄저탄 반입행위로 하여 인종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았다고 <정부>는 말한 바대로 못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16.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군사독재(정권)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자객없는 독재(정권), 무지무능한 박근혜, 미국의 <싸드>배치와 북침전쟁에 동의하는 <대통령>을 용납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4.19와 6월항쟁을 계승하여 미군을 몰아내고 현(정권)을 퇴진시키며 자주통일을 이룩하자 호소하였다.

단체들은 각개 오늘의 금남로 인파광화에 모여 사태를, 민주주파, 민생파, 남북관계파, 반통일(정권)인 박근혜

남조선의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대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량심수후원회,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리대, <기독교평화행동동맹>을 비롯한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이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피로대당을 지지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구호를 발표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현(정권)이 <유신>과 <부패>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진보세력과 민족의 인권을 짓밟았다고 비난하였다.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세월>호학살사건과 전염병사태로 하여 참사, 무능(정권)의 정체는 더욱 명백히 드러났다고 단죄하였다.

격분한 민중이 박근혜를 오늘의 박정희, 전두환, 리명박이라고 규탄하며 현(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투쟁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미군의 범죄적인 탄저탄 반입행위로 하여 인종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았다고 <정부>는 말한 바대로 못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16.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군사독재(정권)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자객없는 독재(정권), 무지무능한 박근혜, 미국의 <싸드>배치와 북침전쟁에 동의하는 <대통령>을 용납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4.19와 6월항쟁을 계승하여 미군을 몰아내고 현(정권)을 퇴진시키며 자주통일을 이룩하자 호소하였다.

단체들은 각개 오늘의 금남로 인파광화에 모여 사태